

# 이이·후쿠자와 유키치 외, 『산수격동요결(刪修擊蒙要訣)』

임상석\*

## 1. 저자와 번역자

이 책의 저자인 율곡 이이 등과 역자인 최남선은 각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기에 별다른 언급이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은 전례를 벗어난 편집과 구성을 취하고 있어 원저자보다 편역자(編譯者)의 의도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한국의 한문고전과 메이지시대의 도덕률 그리고 번역된 서구 격언이라는 세 가지 이질적인 문화가 복잡한 편집을 통해 합류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최남선이 고전어 한문에 근거한 전근대적 문화 질서를 이용한 배경을 제시하겠다.

최남선은 문한(文翰)과 문별에 근거한 조선시대 문화 질서의 해체 과정을 그대로 체화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최남선은 중인 가문 출신으로 황실 유학

---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HK교수, ookie@hanmail.net

생으로 선발되어 조소앙과 홍명희 같은 문한과 문별을 겸비한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며, 신문관을 설립하고 광문화회를 주도하면서부터는 김윤식(金允植)이나 류근(柳瑾) 같은 명망 있는 선배들과도 왕래할 수 있었다. 계몽기와 1910년대는 아직까지 한문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고한 시점이었다. 계당대의 지식인은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처신과 무관하게 대부분 전통적 과문(科文)을 학습받았기에 한학(漢學)이 체질화된 인사들이었다. 최남선은 가승의 약학과 당대의 중국 문현들을 학습의 바탕으로 가지고 10대 초반부터 근대적 학문을 받아들였다. 한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인 문한으로 인간의 신분을 결정하던 조선시대라면 최남선의 학지(學知)는 통할 수 없었다. 전통적 한학과 연원을 달리하는 최남선의 학지가 문한을 가진 다른 선배 및 동류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권력의 교체를 보여 주는 한 징후인 것이다.

신문관과 광문화회를 통해 최남선은 약관의 나이에 문화권력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문의 재력이 뒷받침되었던 것이 결정적이지만 일본 유학을 통해 출판이 가진 권력을 경험했다는 것도 중요한 사정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최남선이 조선시대의 전통적 출판이 가진 위상을 숙지하고 잘 이용했다는 점이다. 근대에 대중매체로서 문화적 권력을 행사하던 출판시장과 성격이 다르지만 출간된 문집, 특히 공간(公刊)된 문집을 가진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이 한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출판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또한 전통적 질서가 흔들린 근대 초기에 가문의 운명을 걸고 가문의 선조나 학맥의 시조가 남긴 문헌을 출간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다. 최남선은 신문관을 비롯한 출판과 인쇄의 기구를 소유하였기에 새로운 문화권력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전통적 문한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출판이 가진 전통적 문화권력을 행사했다는 점 역시 최남선이 가진 시대적 대표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이 『산수격몽요결(刪修擊蒙要訣)』은 조선시대의 도학을 근대적 출판

시장에 맞추어 근대적으로 전용했다는 점에서 역시 시대적 징후를 보여 주고 있다.

## 2.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신문관이 기획한 ‘십전총서(十錢叢書)’의 첫째 권이다. 인욕을 누르고 도를 위해 정진하라는 성리학 입문서가 10전이라는 명분으로 활자로 다시 출간되어 상품이 된 것은 근대계몽기의 시대적 양상이기도 하다. 이 책은 연원이 다른 세 가지 문현을 합류한 양상으로 당대 한·중·일의 이념적 지향인 중체서용(中體西用)·동도서기(東道西器) 등의 자장을 공유하지만, 그 융합의 강도나 성격은 유일무이하다 할 만하다. 타율적 개항과 개화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다산 정약용, 연암 박지원, 성호 이익 등의 자국 고전들이 주목받고 출간되거나 잡지 등의 매체에 게재되었으나, 그 원문을 편집의 의도에 따라 변형한 사례는 없다. 더구나 다른 텍스트와 결합시킨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을 터이다.

세 가지 이질적 문화가 모여 있기에 표지의 서술도 복잡하다. ‘서구의 철인(哲人)·달사(達士)가 남긴 「가언선모(嘉言善謨)」를 율곡의 『격몽요결』과 대조하고 일본 후쿠자와 유키치의 「처세요령(處世要領. 본문에는 修身要領)」을 부록하다’라는 설명이 표지에 필요할 만큼 이 책의 구성은 전례를 벗어나는 것이다. 표지 중앙의 삽화 역시 지금의 관점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 준다. 뒤표지에는 주자의 계승자 황간(黃幹)의 경구인 “진실심지 각고공부(眞實心地 刻苦工夫)”를 적었고 그 뒷면에는 십전총서의 광고가 있다.

책의 전체 구성은 단행본보다는 『소년』 같은 잡지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많다. 표지의 뒤에는 율곡의 시조로 알려져 있으나 와전(訛傳)일 확률이 많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뇌이로다……” 등 시조 두 수를 율곡의 것

이라 하여 실어 놓았다. 속표지의 기록은 표지와 다를 바 없으나 「가언선모」를 “서철(西哲) 격언 84조 대조”로 바꾸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속표지 다음에는 최남선의 지(識)가 실려 있으며 여기부터 면수가 매겨졌다. 최남선은 “산수(刪修)”를 쓰기가 미안하지만 도덕은 때를 따라 변하는 것이라는 합리화를 시도하며, 말썽스런 말씀도 얼마간 그대로 두었다는 말로 이지를 마무리한다.

이 책이 산수 즉 삭제한 『격몽요결』의 부분과 최남선이 자의로 첨가한 부분을 대조해 보면 말썽스러운 말씀의 취지와 배경이 명백해진다. 당대의 사회체제에서 유지될 수 없었던 「상제장(喪制章)」·「제례장(祭禮章)」·「처세장(處世章)」의 3개 장은 전체가 생략되었고, 「지신장(持身章)」·「거가장(居家章)」·「접인장(接人章)」에서는 신분제도와 관계된 부분과 율곡의 주석들이 부분적으로 빠졌다. 원문을 생략한 대신 서구 격언이 포함되었고 후쿠자와 유기치의 글은 짧기는 해도 생략 없이 완결된 상태로 포함되었다. 원문을 생략한 대신 원문과 관계없는 연원의 글을 묶어 놓았으니 말썽스런 말씀이라는 자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조선 도학의 큰 스승인 율곡의 『격몽요결』은 전통적 관점에서 산수의 대상일 수 없으며 원문에 없는 것을 추가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한 일이다. 이 말썽 많은 편집 방향에 대해서는 원군이 필요한 상황인데 개신유학자로서 당시의 계몽운동을 주도한 박은식의 서문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지(識) 다음에 『격몽요결』의 원래 서문에 표점을 더해 실었고, 바로 다음에 박은식의 「산수격몽요결 서」는 백문(白文)으로 실려 있다.

다음에 목차와 정오표가 한 면에 실려 있으며 그 뒷면에는 서철(西哲)의 격언을 조목별로 분류해 발화자와 화자별 빈도를 적어 놓았다. 플라톤에서 헤겔까지, 성경에서 속담까지 발화의 연원은 다양하다.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한 면을 양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에는 신문관 편집국에서 집역(輯譯)했다는 서구 격언이 한글의 비중이 높은 국한문체로, 하단에는 같은 곳에서 산수 한 『격몽요결』이 원문에 한글 현토를 붙인 문체로 실려 있다.

상단과 하단 가운데 작은 중단을 설정하여 글의 흐름에 따라 ‘선수입지(先須立志), 용왕진취(勇往進取), 진지실천(眞知實踐), 혁구반본(革舊反本)……’ 등 의 주제어를 기록하였다. 이 문구들은 본문의 이해를 돋는 역할을 하지만 상단의 서구 격언과 『격몽요결』을 연결하는 기능도 가진다. 가령 ‘선수입지’에 “사람은 뜻 하나로써 만 가지 일을 다할 수 있나니라”라는 영국 속담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격몽요결』의 진수를 요약한 것으로 선전했으나 사실 아래 배치된 서구 격언 때문에 원문을 곡해할 여지가 적지 않다. 가령 위 주제어 가운데 성선설의 취지가 담긴 ‘혁구반본’은 서구 격언 가운데 적절한 대응을 구성하지 못한다. 이 혁구반본이 다른 주제어와 위상이 다른 것도 아니면서 편집의 원칙이 다른 셈이다. 이런 경우는 중단의 주제어와 상단의 서구 격언이 하단의 『격몽요결』 본문을 왜곡하는 양상이다. 상단과 중단을 통해 『격몽요결』은 여러 차례의 굴절을 겪게 된다.

상단의 「가연선모」에는 격언의 성격에 해당하는 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포프(Alexander Pope)의 시구가 발췌·번역되기도 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한 편의 글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중단과 상단의 연결도 후반으로 갈수록 밀도가 떨어져 전반적으로 『격몽요결』과 서구의 격언의 대조라는 당초의 편집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양상이다.

『격몽요결』과 서구 격언을 대조한 『산수격몽요결』의 본문은 36면으로 마무리되고 바로 이어서 12면 분량으로 「수신요령」이 실려 있다. 『격몽요결』이 편집과 생략을 통해 본래의 모습과 멀어진 반면, 「수신요령」은 다소간의 의역이 있으나 원문의 의미가 거의 변경되거나 생략되지 않았다. 독립자존이라는 후자의 주제는 명징하게 전해지는 반면 전자의 주제인 정심(正心)공부, 격물치지 등은 서구 격언과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지해야 하는 구조였다.

### 3. 의의

이 책은 자국의 한문고전을 근대적으로 전용하려 한 결과물로 국학의 시원적 형태라 평가할 수 있다. 동도서기·중체서용 그리고 화흔양재(和魂洋才)라는 한·중·일 삼국의 당대적 시대조류를 공유한 가운데, 동과 서뿐 아니라 근대일본이라는 요소까지 감안해야만 했던 한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책은 자국 고전에 대한 상업화와 근대화의 강도가 극대화된 형태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 강도에서는 자본과 근대를 향한 강박이 드러난다. 한편 이 강박 속에 자국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경애가 결합된 것도 주의해야 한다. 고전어 한문에 근거한 문화 질서는 근대 초기까지 그 영향력이 굳건하였다. 당대의 최남선은 이 조선적 문화 질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한편, 일기에서 한배님에게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 기원하고 시조집을 편찬할 정도로 자국 고전과 한문의 세계에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최남선의 1인잡지에 가까운 『소년』에 게재된 이 책의 광고문에서 『격몽요결』은 불멸의 고전이며 시대의 폐단에 희생된 박옥(璞玉)이라 했다. 박옥을 10전이라는 강력한 광고로 포장하여 당대의 독자와 다시 만나게 하는 일, 서구와 근대일본과 함께 우리의 위인인 율곡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동포에게 환기하는 일, 이것이 이 책을 출간한 최남선의 꿈이었다 하겠다. 여기에서 이 『격몽요결』이라는 박옥이 당대와 만나기 위해 서구 격언과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외래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일본어를 통해 중역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한 서구의 격언들은 발화의 역사와 배경이 사상된 것으로 결국 「수신요령」이라는 후쿠자와 유기치의 메이지 도덕률과 시대적 정신을 공유하는 면이 많다. 그렇다면 율곡은 최남선이라는 편찬자를 통해 설정된 메이지라는 프리즘을 통해 당대의 한국인에

게 재현된 것이다.

자국 고전에 대한 당대적 해석은 계몽기의 다른 매체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남선의 이 책처럼 원문에 대한 변형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없으며, 더욱 서구 격언과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타국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산수격몽요결』의 이 급진적 편성은 결국 상업적 실패로 귀결되었고 십전총서 자체는 후속 도서가 출간되지 못했다. 이 실패에도 최남선은 서구와 일본 그리고 자국의 고전을 합류시키려는 기획을 『청춘』 등의 다른 출간물에 계속 유지했으며, 결국 1910년대의 『시문독본』은 대성공을 거둔다. 서구와 일본에 대응하는 자국의 전통을 구성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겠다는 최남선의 꿈은 『산수격몽요결』에서는 실패했지만, 『시문독본』에 이르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룬 셈이다.

『산수격몽요결』이라는 책 자체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지 결코 성공적인 책이라 하기는 힘들다. 편집 의도를 관철하지도 못했고 그 의도 자체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내기도 어렵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절대적 위기에 직면한 당대 한국이 가진 자본과 근대에 대한 강박이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점, 국학의 초보적인 형태가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고전이 한문에 근거한 문화질서의 교체를 보여 주는 점에서 문화사 내지 개념사의 주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